

다시 한 번 중동에서 울리는 전쟁의 목소리

**미·영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동맹들을 군사적 공격으로 위협하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패배를! 이란에 대한 군사적 방어를! 그러나 몰락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선 안 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1년 8월 5일, www.thecommunists.net

1. 오늘 이스라엘 국방장관 베니 간츠는 뉴스 웹사이트 Y넷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에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는 지금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 항공기와 포병대가 레바논 마을을 폭격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사태다. 서방 제국주의 진영을 주도하는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 이번 중동 긴장고조 사태는 지난주 아라비아 해에서 있던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 호에 대한 드론 공격이 도화선이 됐다. 이 공격으로 영국 용병 1명을 포함한 2명이 사망했다. 이 유조선은 이스라엘 억만장자 소유 회사가 관리하는 유조선이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나 정보도 없으면서 이번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돌렸다. 이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3. 널리 알려졌듯이, 이스라엘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림자 전쟁을 벌이며 중동 해로를 운항하는 이란 선박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란을 비롯한 친 이란 세력들도 틈틈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비슷한 공격으로 대응해왔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핵 과학자 살해와 특히 2020년 1월 이란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 — 이란 지배 엘리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 — 암살 등 이란에 대한 수많은 군사 공격 및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4. 이러한 사태발전의 총체적 배경에는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패권 세력이었던 미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쇠퇴가 있다. 이 미국 패권의 역내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핵 무기 200기를 포함하여) 보유하며 워싱턴이 부리는 가장 중요한 지역 현병으로 역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와 함께 이스라엘의 입지도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이로써 이란과 같은 새로운 지역 강국을 위한 공간이 열리고 있다.

5. 이스라엘은 전래의 군사주의·배외주의 정책을 더욱 확대 고조시켜 자신의 쇠퇴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대 레바논 전쟁 (2006년)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인민을 상대로 한 전쟁 (2008/09년, 2012년, 2014년, 2021년)을 벌였지만, 그러나 어느 전쟁도 이기지 못했다.

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시온주의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의 저항 —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그 밖의 나라들에서 — 을 지지해 왔다.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패배는, 그 어느 패배든 이

지역의 제국주의-식민주의 질서의 역사적인 기동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한 걸음 전진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인종주의 정주자 국가로 성격규정 한다. 이스라엘은 원주 팔레스타인 주민을 추방하고 들어선 불법단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국가의 파괴와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from the River to the Sea)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요구한다.

7. 이스라엘, 미국·영국 대 이란 및 그 동맹들 간의 그 어느 군사적 대결에서도 RCIT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패배와 이란의 군사적 방어를 내건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 방어는 몰라 (이슬람 율법가) 정권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포함하지 않는다. 몰라 정권은 이란의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억압하는 철두철미 반동 독재다. 우리가 거듭 밝혔듯이, 사회주의자들은 이란의 민중봉기를 지지하며, 또한 아랍인, 아제르인, 쿠르드족 등 민족 소수자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정권을 도와 민중해방투쟁을 탄압하는 이란의 반동적 역할을 규탄한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란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우리의 입장이, 이란 정권 또는 이란 정권의 지역 동맹들에 대항하는 민중투쟁에 대한 우리의 지지 입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사우디-UAE 침공에 대항하는 예멘 인민의 방어 전쟁도 계속해서 지지한다.

8. 맑스주의자들이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혐의를 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란 정권에 맞서 노동자·피억압자를 편 드는 것이 가능한가. 이 쪽 진영이든 저 쪽 진영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지." 우리는 이런 혐의 제기를 거부한다. 우리의 정책은 현실이 모순적인 만큼 "모순적"이다. 자본주의 반(半)식민지의 반동 정권이 자기 인민에 대한 억압에 힘을 쏟는 중에 동시에 외국 제국주의 열강의 공격에 직면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예들 들어, 1990-2003년 사담 후세인 하에서의 이라크, 1999년 세르비아). 우리는 리틀 사탄이 그레이트 사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에 의해 끌어내려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몰라 정권이 미제와 그 동맹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피억압자에 의해 타도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타도되게 하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란을 군사적으로 방어한다. 일상사로 비유하자면, 온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잔인한 엄마에게 학대당한 아이를 동정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남성 쓰레기 인간에 의한 강간 시도에 대항하여 같은 그 엄마 여성을 방어할 것이다. 각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RCIT 국제사무국

* * * * *

이란 및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RCIT가 발표한 많은 성명과 기사, 논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